

대구 · 경북

「미리 알아보는 기상기후정보」 6월호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2019년 5월 27일 10시 발표

6월의 기상전망

- 기 온 :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 강수량 :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1주 (6.3.~6.9.)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으로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주평균기온) 평년(19.7~20.9℃)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주강수량) 평년(3.9~17.5mm)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2주 (6.10~6.16)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습니다. (주평균기온) 평년(20.3~21.5℃)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주강수량) 평년(9.0~23.4mm)보다 적겠습니다.
3주 (6.17~6.23)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습니다. (주평균기온) 평년(20.9~22.1℃)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주강수량) 평년(12.2~47.2mm)보다 적겠습니다.
4주 (6.24~6.30)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주평균기온) 평년(21.5~22.9℃)과 비슷하겠습니다. (주강수량) 평년(17.3~63.0mm)과 비슷하겠습니다.

※ 평년 : 1981 ~ 2010년

6월의 대표 기상현상

■ 장마



장마 현상은 6월 하순경부터 시작하여 7월 초순경까지 며칠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강수가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함. 이 즈음 우리나라로 확장하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과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북상하는 한랭습윤한 오호츠크해 기단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길게 동서로 전선이 형성됨. 두 기단 모두 습윤한 기단이고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선 부분에서는 강수현상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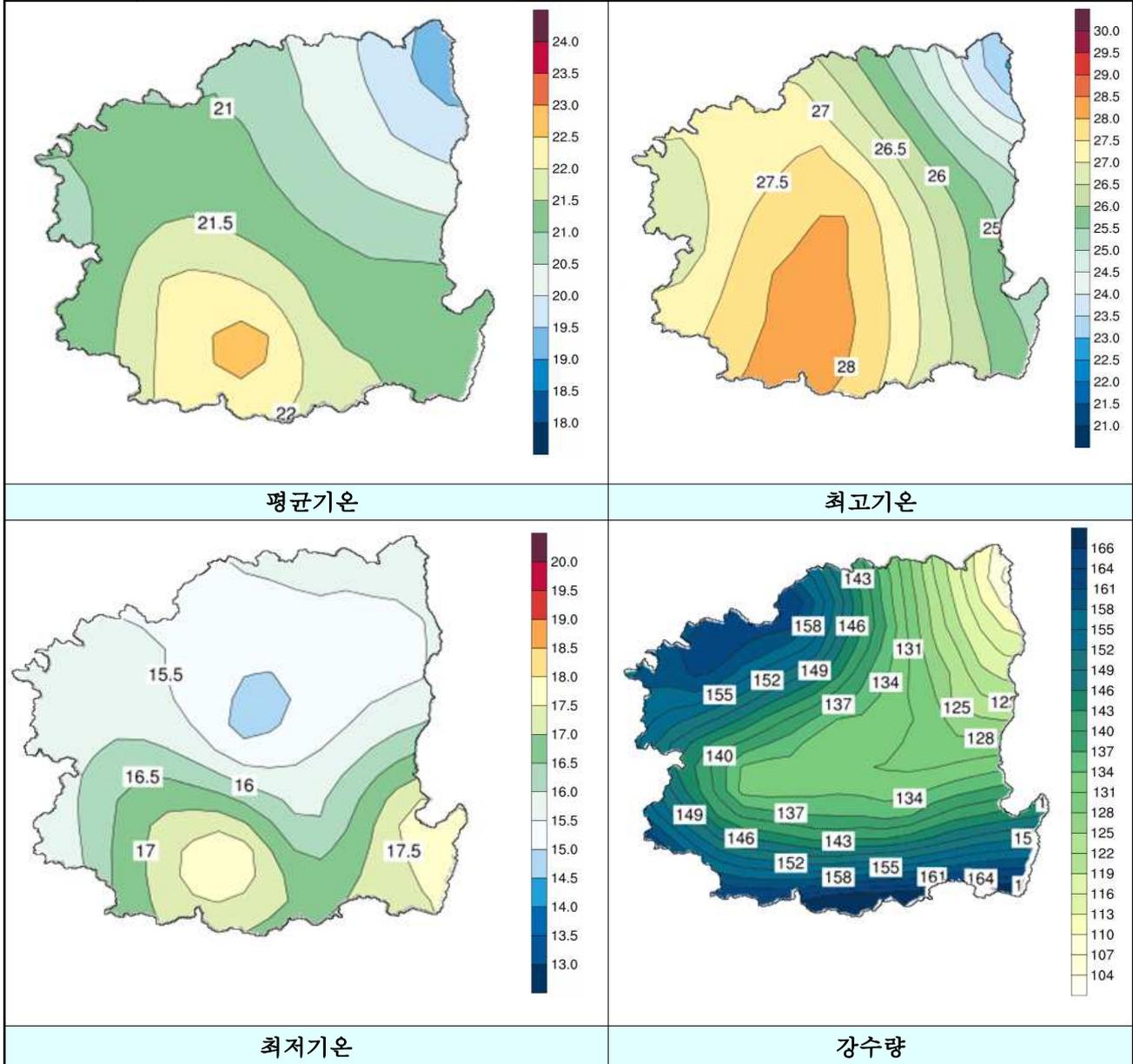
두 기단 사이의 세력에 따라 장마전선은 남북으로 이동하며 강수현상을 발생시킴. 북태평양 기단이 강할 때 그 남쪽으로는 무더운 날씨가 형성되고, 오호츠크해 기단이 강할 때 그 북쪽으로는 서늘한 날씨가 형성되나, 여름이 깊어질수록 북태평양 기단이 북상하여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쳐 한여름의 무더위가 형성됨.

6월의 대구·경북 지점별 평년 기후정보

■ 지점별 기후 평년값 및 분포도

※ 안동은 1983년부터 관측 : 최댓값 : 최솟값 (단위 : 기온 °C, 강수량 mm)

구분	대구	안동	울진	포항	영주	문경	영덕	의성	구미	영천
평균기온	22.8	21.4	19.1	21.4	21.0	21.2	20.1	21.2	22.1	21.3
최고기온	28.3	27.4	22.9	25.5	27.1	27.1	25.1	28.1	27.9	27.3
최저기온	18.2	16.1	15.6	17.9	15.4	15.8	15.5	14.8	16.8	15.9
강수량	142.6	136.8	105.8	141.6	164.6	163.2	119.8	132.0	130.3	135.8



■ 대구·경북 6월 평균 기상현상일수

(단위 : 일)

구분	대구	안동	울진	포항	영주	문경	의성	영천	봉화	구미	울릉도
장마(강수)	9.5	10.1	9.6	9.7	9.5	9.5	8.8	9.0	10.5	8.8	9.1

6월 기후 극값

구분		대구	울진	안동	포항	영주	구미	울릉도
기온 (℃)	일평균 기온 최고	30.1 (2005.06.25)	28.9 (2011.06.21)	27.3 (2005.06.25)	31.1 (2005.06.25)	27.6 (2005.06.24)	28.3 (2011.06.23)	28.8 (1987.06.05)
	일최고 기온 최고	38.0 (1958.06.26)	36.0 (1991.06.28)	35.7 (1997.06.18)	37.7 (2005.06.25)	35.5 (1997.06.17)	36.5 (1997.06.17)	32.2 (1987.06.05)
	일최저 기온 최저	7.8 (1921.06.03)	6.5 (2010.06.01)	6.1 (2010.06.01)	8.2 (1969.06.07)	5.1 (2010.06.01)	7.3 (1992.06.08)	7.8 (1969.06.07)
강수량 (mm)	일강수량 최고	136.8 (1978.06.18)	150.5 (2011.06.24)	147.0 (2011.06.24)	150.5 (2003.06.19)	259.5 (1994.06.30)	130.5 (1996.06.17)	148.0 (2011.06.26)
풍속 (m/s)	일최대 풍속 최고	17.7 (1946.06.24)	21.0 (1974.06.01)	9.3 (1993.06.02)	29.8 (1952.06.08)	11.1 (2000.06.06)	12.5 (1974.06.01)	30.0 (1949.06.21)
	일최대 순간풍속 최고	24.0 (1970.06.14)	28.0 (1996.06.18)	16.6 (1991.06.11)	25.5 (1963.06.04)	18.1 (2009.06.12)	14.4 (1997.06.01)	38.8 (1983.06.01)

※ 일 최심 신적설 : 00~24시 중 새로 내려 쌓인 눈의 최대 깊이
 일 최심 적설 : 내려 쌓인 기간에 관계없이 관측 시에 실제 지면에 쌓인 눈의 깊이

이 달의 절기

망종(芒種)



24절기 중 아홉 번째로, 태양의 황경(黃經)이 75도에 이르고, 벼 같이 수염이 있는 까끄라기 곡식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의미.

- 시기 : 양력은 6월 6일 무렵, 음력은 5월
- 특징 : 모내기와 보리베기에 적당한 시기임. 또한 사마귀나 반딧불이 나타나는 시기이며, 매화가 열매 맺기 시작하는 때임.
- 속담 :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
 → 망종까지 보리를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할 수 있다는 의미. 망종을 넘기면 보리가 바람에 쓰러질 수도 있으니 이를 경계하라는 의미.

하지(夏至)



24절기 중 열 번째로 태양이 황도상에서 가장 북쪽인 하지점에 위치하고, 북반구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남중고도가 가장 높아짐.

- 시기 : 양력 6월 22일 무렵, 음력 5월
- 특징 : 정오 태양 높이가 연 중 가장 높고 일사량과 일조 시간이 가장 많음. 낮의 길이가 연 중 가장 길어 14시간 35분 가량 지속됨.
- 속담 : 하지의 지나면 밭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
 → 물이 넉넉해야 농사가 잘 되듯이, 눈물대기가 그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생활 속 날씨 이야기

Q 장마의 정의는 무엇이고, 시작과 종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A 장마는 동아시아 몬순시스템의 일부로서 여름철 우리나라 남쪽의 **온난습윤한 열대성 기단과 북쪽의 한랭습윤한 한대성 기단이 만나서 형성되는 정체전선**임.

전선이 걸쳐 있는 지역에 **강한 남서풍과 습윤한 공기 유입량이 증가하고 장기간 많은 비가 내리는데**,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장마라고 정의함.

일반 국민은 장마 시작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기간이 도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장마 종료는 긴 기간 여름철 강수가 끝나고 맑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여름철 강수형태 변화로 장마가 실질적으로 여름철 강수를 대표하지 못하여 장마 시중예보 의미가 퇴색되어, **2008년 장마 종료 및 2009년 장마 시작 관련 장기예보 발표를 중단**하였음.

그 대신 장마 종료 후 사후분석을 통해 매년 장마 시중 및 특징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음.

※ 최근 10년 간 대구·경북 연도별 장마 시중시기 및 기간, 장마기간 강수량 및 강수 일수(2008~2018)

연도	시작일	종료일	기간(일)	강수량(mm)	강수일수(일)
2008	6.17	7.26	40	268.7	18.1
2009	6.21	8.03	44	383.8	22.2
2010	6.18	7.28	41	177.1	21.0
2011	6.10	7.10	31	421.8	15.8
2012	6.18	7.17	30	255.4	14.4
2013	6.18	8.02	46	309.1	23.3
2014	7.02	7.29	28	72.3	12.6
2015	6.24	7.29	36	195.1	15.0
2016	6.18	7.16	29	279.5	13.7
2017	6.29	7.29	31	210.1	16.0
2018	6.26	7.09	14	267.7	10.9